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전치사
‘on’의 인지적 의미 분석



2013 년 2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주 연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전치사 ‘on’의 인지적 의미 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2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 주 연

이주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 년 2 월 22 일



주심 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
1.2. 연구 방법과 구성	3
II. 이론적 배경과 의미 분류	5
2.1. 이론적 배경	5
2.1.1. 인지문법	5
2.1.2. Langacker	6
2.1.3. 의미와 개념화(Conceptualization).....	8
2.1.4. 의미 확장의 기제	8
2.1.5. Bolinger(1079).....	9
2.1.6. 이기동(2001)	10
2.2. 원형의미.....	11
2.3. 확장 의미.....	14
2.3.1. 행동의 목적·과정.....	15
2.3.2. 사람·사물의 상태.....	16
2.3.3. 동작의 대상·방향.....	17
2.3.4.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	20
2.3.5. 물건의 소지·활용	20
2.3.6. 시간	20
2.4. 추상 의미.....	22
2.4.1. 행위의 근거·이유	22
2.4.2. 영향력의 행사	24
2.4.3. 주제·저술 등의 밑바탕	25
2.4.4. 종사·봉사	26
2.4.5. 첨가	26
2.4.6. 인적관계	27
III. 중학교 교과서 분석 및 논의	28
3.1. 개별의미의 분포.....	28
3.2. 학년별·출판사별 의미의 분포.....	37
IV. 결론.....	44
참고문헌.....	46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올해부터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산실용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어휘·말하기 등의 다면적인 평가로, 새로이 시행될 인터넷 기반 국가수준영어능력평가(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이하 NEAT)를 대비하여 시행되는 시험이다. 다면적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험이나, 현재 어휘와 작문평가지가 시교육청 주관으로 각 학교별로 의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은 이 시험일을 “단어 시험일”이라고 부르며, 수준은 한 두 학년 정도 웃도는 것으로, 상반 학생들에게도 난이도가 높아, 그들은 접해보지 못한 어휘들이라며 불멘 소리를 하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어휘학습의 영역은 시간적인 소모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학습자가 영어 어휘 학습에 곤란을 느끼게 되는 것은 구절동사의 학습과도 관련이 있다. ‘구절동사’란 동사와 불변화사를 함께 일컫는 것으로 여기서 불변화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치사 ‘on’의 경우만 해도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 Korean Dictionary에 따르면 18가지에 이른다. 아래는 그 예이다.

- (1) …(위)에[로]
- (2) <무엇에 기대거나 받쳐져 있음을 나타냄>
- (3) (교통수단을 나타내어) …으로[…을 타고]

- (4) (요일 · 날짜 · 때를 나타내어) …에
- (5) …하자마자[…한 즉시]
- (6) …에 관하여
- (7) <‘휴대’, ‘소유’를 나타냄>
- (8) ‘소속’을 나타냄
- (9) …을 먹는[마시는/복용하는]
- (10) ‘방향’을 나타냄
- (11) (어떤 장소)에[가까이에] (있는)
- (12) ‘근거’, ‘이유’를 나타냄
- (13) <돈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사람 · 지불되는 돈의 종류 등을 나타냄>
- (14) (‘수단’을 나타내어) …으로[…에]
- (15) 일부 명사 · 형용사와 함께 써서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냄
- (16) …에 비해
- (17) ‘활동’, ‘상태’를 나타냄
- (18) (전화번호를 나타낼 때 쓰여) …(번)으로

이렇게 뜻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방법은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 구절동사의 의미는 이기동(2001)에 따르면 ‘무의식적 추상화와 종합화의 정신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적 의미의 나열이 아닌, 추상화와 종합화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살펴보아야 ‘on’의 의미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다. Bolinger(1979)에 따르면 ‘한 형태에 한 의미만 있으며,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기에, 전치사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구절동사의 불변화사(Particles)는 전치사를 일컫는데, 본래의 뜻이 없이

다른 형태소들을 연결하는 기능어라고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보고 있다. 전통문법의 관점에서는 전치사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의미를 가지는 동음 이의어 혹은 다의어 현상으로 바라보았다.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형생성 문법에서는 전치사는 본래의 뜻이 없고, 그 자체가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들을 연결해주는 기능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전치사의 제반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전치사가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기능어라는 분석방법에서 탈피하여 전치사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처럼 자체의 고유하고 중요한 뜻을 지닌 것으로 본다.

전치사를 인지 문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이기동을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본 논문은 김일곤의 “영어 전치사 ‘on’의 인지적 의미분석(2001)”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중학교 교과서 속의 ‘on’의 의미를 원형의미, 확장의미, 추상의미로 나누어 파악할 것이다. 각 의미의 출판사별 분포도를 살펴보고 학년별 의미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의 특성 상 ‘on’으로 지칭되는 원형의미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은 학년이 낮을수록 그 빈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1.2. 연구 방법과 구성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는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중 두산동아, 지학사, 천재교육 세 곳의 출판사에서 각 학년 별 한 권씩 9권을 살펴볼 것이다.

제 2장에서 전치사 ‘on’의 원형의미를 시작으로 확장의미·추상의미에 이

르기까지 교과서에 사용된 전치사 ‘on’의 의미별 사용분포를 파악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자료들을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누어 나타낸다. 원형 의미는 공간적 의미로 수직적 접촉의 경우, 수평적 접촉의 경우, 근접 접촉의 경우가 있으나 세 경우를 아울러 공간적 의미로 수렴한다. 확장 의미는 행동의 목적·과정, 사람·사물의 상태, 동작의 대상·방향, 교통·통신의 수단·방법, 물건의 소지·착용, 기간으로 분류하였다. 추상의미는 행위의 이유·근거, 영향력의 행사, 주제·저술 등의 밑바탕, 종사·봉사, 참가, 인적관계로 분류하였다.

제 3장인 “중학교 교과서 분석 및 논의”에서는 3종 총 9권의 교과서에 실린 ‘on’의 의미별 분포를 살펴본다. 그리고 학년별 추이와 출판사별 추이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과 의미 분류

2.1. 이론적 배경

2.1.1. 인지문법

인지 문법(Cognitive Grammar)의 의의 중의 하나라면 전치사 연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연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치사의 종래 인식이란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형태소들을 연결만을 하는 기능어라고(Curme, 1968) 바라보는 관점이다. 인지 문법에서는 전치사를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물체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단어로 본다.

인지문법은 아래의 생성문법의 세 가지 특성을 부정한다. 첫째, 언어를 일반 인지능력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자조적(self-contained) 존재로 연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체계라는 관점이다. 둘째, 문법은 어휘부와 의미부에 독립된 자립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 셋째, 진리 조건에 기초를 둔 어떤 형태의 형식논리로 설명된다는 관점이다.

인지 문법의 관점에서는, 언어에는 언어능력 이외의 인지능력의 영향이 있으며 언어 능력을 일반 인지능력의 일부로 본다. 문법은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할 수 없으며, 문법구조는 상징적이라서 구조와 개념 내용이라는 두 기둥을 거느린 체계로 본다. 물리적, 문화적, 지적 환경에서 인간 경험을 의미화한 것으로 의미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문법 구조는 상징적이라 구조와 개념을 가진 체계로 보고 의미를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인지문법의 단위(unit)는 세 가지가 있다. 의미 단위, 음운단위, 상징단위이다. 상징단위란 양극적인 존재로서 한극은 음운극이고 다른 한 극은 의미극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단위는 의미와 소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징단위에 의해서만 기술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인지문법은 어휘부, 형태부, 통사부에 경계를 긋지 않고 모든 문법적 단위는 어휘이거나 그 이상의 단위이거나 모두 의미와 소리로 이루어져있어서 상징적이라고 본다. 상징단위는 복잡성과 구체성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다양하다. 복잡성 면에서, 어느 한 단위는 성분으로 다른 상징단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최소 단위(하나의 형태소)이다. 의미구조란 원래가 주관적이며 관습적 영상(imagery)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습적 영상이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거나 정신적으로 묘사하는 데 대안이 되는 여러 방법으로 정의된다. 언어 의미는 범위에 있어서 백과사전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의미론과 화용론을 구별하는 것은 자의적이다.

2.1.2. Langacker(1987)

공간문법으로도 불린다. 이 이론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언어능력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언어현상은 인지의 부분이라고 보아 언어분석에 인지적 요인의 작용을 반영코자 한 문법모형이다.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문법적 현상이 인지작용과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하에 인지 문법은 문법적 현상 하나 하나가 인지작용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밝힐 수 까지는 없다하더라도 인지작용과의 관련성에서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미에 대한 견해로 첫째, 자주 쓰이는 전형적으로 서로 관련된 의미들이 망을 보여준다. 둘째, 의미 다의 현상은 인지 영역들(cognitive

domains)에 준하여 특징지어진다. 셋째, 의미구조는 바탕(base)에 윤곽(profile)을 부여함으로써 그 의미 값을 이끌어낸다. 넷째, 의미구조는 관습적 영역(conventional imagery)을 포함한다.

위치가 결정되는 개체는 탄도체(trajector: tr)라 부르고 참조점 역할을 하는 개체는 지표(landmark: lm)라 부른다. 인지문법에서 전치사는 두 물체(thing)가 이루는 상호 관계(relation)를 묘사(profile)하는 서술어(predicate)로 간주되고 전치사는 탄도체-지표 관계에 여러 국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어떤 언어 표현은 기본 영역에 준하여 직접 특징이 지어질 수도 있으며, 가능한 예로 red(색채 공간), hot(온도), line(2차원 공간), 그리고 before(시간)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념들이 이런 원초적인 개념으로 직접 명시되는 것은 아니다. 예로서, 손마디는 손가락을 전제로 하고, 손가락은 손을, 손은 팔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영역을 Langacker는 기본영역이라 지칭한다.

2.1.3. 의미와 개념화(conceptualization)

개념화의 바탕이 되는 인지과정(신경정신활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의미의 완전한 기술은 불가능하며, 이 인지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심리적 경험이 쌓여서 우리의 지식 체계가 이루어지므로 의미는 지식 체계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다.

의미가 지식 체계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의미가 언어지식이나 언어외적 지식에서 어느 한쪽 만에 바탕을 둔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념화란 단순히 인지과정이다. 어떤 특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심리적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어떤 복잡한 인지사건(cognitive event: 궁극적으로 신경세포들의 조정된 작용으로 볼 수 있다)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으로 더 줄일 수 없는 원초적인 표상 영역을 기본 영역(basic domain)이라 일컫는다. 이 기본 영역들에는 시간 영역과 2차원, 3차원의 공간영역, 시각과 관련된 색채 영역, 청각과 관련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영역들이 이에 속한다.

2.1.4. 의미 확장의 기제

대표적인 기제인 은유는 여러 다른 의미들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개념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배하며,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구조화한다. 이렇게 구조화된 개념체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실재를 규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체계가 대부분 은유적이다 (Lakoff & Johnson, 1980).

은유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널리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체계이다

‘Time is money’라는 은유는 time영역과 money영역의 사상(mapping) 관계이며 time이라는 목표영역을 money라는 근원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근원 영역 속의 단어의 의미는 보다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따라서 근원 영역은 공간적 의미 즉, 기본의미이고 목표영역은 추상 의미이다. 은유라는 의미 확장의 기제를 통해 기본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을 돈처럼 소비하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은유적 개념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다. 만일 은유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은유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이 단순히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라, 실제로 다른 개념이 된다. 실제로 시간은 돈이 아니라 돌려받거나 받더라도 그 때의 시간을 돌려받거나 줄 수 없다. 어떤 개념이 은유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그 개념이 부분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된다.

‘on’의 기본 의미가 확장 의미로 추상 의미로 변화하는 현상은 은유적 확대에 의한 것이다.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은유를 통한 추상적 현상이 개념화되어 ‘on’은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가지게 된다.

2.1.5. Bolinger(1979)

한 형태에 한 의미만 있으며, 형태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전치사의 뜻은 사전에 여러 가지가 실려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의 뜻 밑에는 반드시 공통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평범하지만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Bolinger가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한 전치사가 여러 맥락에 쓰일 때 서로 다르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는 공통되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언어요소에는 변하지 않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한 전치사가 사전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실려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뜻 하위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곧 전치사의 의미 복잡성을 간단히 하고 전치사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1.6. 이기동(2001)

인지문법에서는 의미에 대하여 전형적으로 서로 관련된 의미들의 망을 보여주며, 의미 다의 현상은 인지영역들에 준하여 특정지어지고 바탕(base)에 윤곽(profile)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미구조는 관습적 영역을 포함한다.(Langaker, 1987). 다시 말하자면, 언어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지는데,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와 확장 의미(extended meaning)가 그것이다. 원형의미란 원어민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더 이른 시기에 습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미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추상으로 전이가 가능하나 역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며(Givón, 1979), 이기동(2001)에 따르면 의미는 기본의미와 문맥 속에서의 의미로 전환되는 것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는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구절 동사의 의미는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추상화와 종합화의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절동사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은 암기를 종용받고 교사는 암기를 권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내에 전치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서에서의 의미분포를 살펴보는 일과 그 의미분류는 교사로 하여금 교과서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2.2. 원형의미

김일곤(2000, 2001)에 따르면 on의 기본 의미는 탄도체(tr:trajector)와 지표(lm: landmark)의 공간 내 직접 또는 근접 접촉으로 본다. 아래는 수평적 상하 접촉의 예이다. 수평적 상하접촉이란 수평선을 기준으로 상하로 직접 접촉하는 것을 일컫는데, ‘on’의 의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한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두 물체가 정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on’은 정적인 접촉을 묘사한다.

- (1) a. the diagram on page 5
- b. Put it down on the table.
- c. There's a mark on your skirt.

(1a)에서 다이어그램이라는 탄도체는 5쪽이라는 지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수평으로 접촉하고 있다. (1b)의 탄도체 it은 table과 위와 아래가 맞닿아 있는 모습이다. (1c)의 mark 또한 skirt에 위와 아래로 직접 만나서 직접 겹쳐진 상태이다. 이 정적인 관계는 공간에서의 직접 접촉하는 관계를 묘사한다. ‘on’의 전형적 의미인 물리적인 접촉 중에서도 지표 위에 탄도체의 아랫면이 접촉하는 형상이다. 이것은 김일곤에 의하면 단순 정적 상태(simple stative relation)”라고 일컬어진다. 탄도체와 지표 간에 움직임이나 상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출발하여 일정하게 정지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양자가 상호관계(interconnection)를 형성하게 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수평적 상하 접촉1)

아래는 수직적 좌우 접촉의 예이다. 직접적 접촉은 수평적인 상하접촉 외에도 수직적인 좌우 접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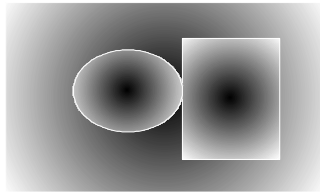
(2) a. Hang your coat on that hook.

b. a picture on a wall

(2a)의 코트는 옷걸이의 표면과 분명히 접촉하는 상태이지만 수평이 아닌 옷걸이가 세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좌우로 수직 접촉(vertical contact)

1) 모든 삽입된 그림의 원형은 탄도체(trajector)를, 사각형은 지표(landmark)를 상징한다.

하고 있는 상황이며, (2b)의 탄도체 picture는 wall이라는 지표에 역시 좌우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 위에 놓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상호 접촉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림으로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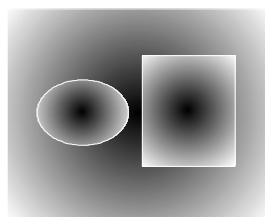


<그림2> 좌우 수직 점접촉

아래는 근접 접촉의 예이다. 'on'의 전형적인 의미는 물체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두 물체가 접촉을 이루는 경우에도 'on'이 사용된다. 이를 근접 접촉(neighboring contact)라고 부른다.

- (3) a. a town on the coast
b. a house on the Thames

(3a)에서 마을이 정확히 해안에 있을 순 없으며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b) 역시 주택이 템즈 강 위에 서있을 순 없으므로 템즈 강가에 있는 것이다. 'on'을 단지 물체끼리의 상하 접촉으로만 인식한다면 (3)에 나타난 인지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그림 3> 근접 접촉

전치사 ‘on’은 이렇게 근접한 접촉의 경우에도 쓰인다.

2.3. 확장 의미

‘on’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목적·과정, 사람·사물의 상태, 동작의 대상·방향 등에도 쓰인다. ‘on’의 전형적 의미인 두 물체끼리의 접촉에서 물체만이 아니라 동작이 물체를 만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래를 보자.

- (4) a. Try lying on your back.
- b. He had been hit on the head.
- c. We lived on an estate.
- d. She was standing on foot.

(4a)의 드러눕는 동작이 탄도체로 신체의 후면이라는 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4b)에서는 내려치는 동작이 두부와 접촉하고 있다. (4c)에서의 살아가는 동작이 주택단지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의 묘사이다. (4d)는 한 발로 서있다는 의미로, 그녀의 서있는 행위가 한 발이라는 지표를 정확하게 접촉한다. 전치사 ‘on’의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확장된 의미로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확장된 경우이다.

2.3.1. 행동의 목적 · 과정

아래는 동작이라는 탄도체가 지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표라는 과정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5) a. to be on business / holiday /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접촉관계가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She is here on business라는 문장을 보면 그녀는 사업차 여기에 와있는 것으로 탄도체 she는 business라는 지표를 목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She is on her holiday라는 문장에서 그녀는 holiday라는 추상의 것에 놓여진 상태이다. 추상의 지표 때문에 공간적인 접촉을 한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she라는 탄도체는 holiday라는 지표와 분리할 수 없는 행동의 과정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행위의 목적

<그림 5> 행위의 과정

그림은 (5)의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진행되며, 굵은 선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 탄도체는 지표인 business와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2. 사람 · 사물의 상태

- (6) a. The book is currently on loan.
 b. She is on her vacation.
 c. The doctor put me on antibiotics.

여기서 탄도체는 book이고 loan은 지표로써 탄도체의 상태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계속되는 중이다. 책이 현재 대출 중이라는 것은 시간적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on이 이렇게 의미상의 확장이 일어난 것은 행동의 목적·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그림으로 설명가능하다. 대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중이라는 지표가 책이라는 탄도체와 접촉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모양이다. 사람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방학 중이거나 여행 중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탄도체와 지표 간의 비유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시 같은 설명으로 나타내는 예이다. (6c)에서 나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지고 그 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2.3.3. 동작의 대상 · 방향

동작의 대상이나 방향에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7) a. on the left / right
 b. He turned his back on us.

여기서 (7b)는 그가 등을 돌려 his back은 us와 접촉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와 직접적인 접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시각에 그의 등이 나타나고 그 시각의 소유자인 우리에게 그가 등을 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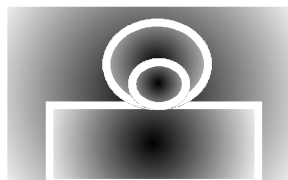
으로써 그의 등이 근접한 것을 나타낸다. (7a)의 경우, 동작이나 사물이라는 탄도체가 생략되어있지만 동작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왼편이나 오른편을 향하거나 닿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on의 방향성이다.

2.3.4. 교통 · 방송통신의 수단 · 방법

교통의 수단을 나타내거나 교통의 방법을 나타낼 때에도 on은 사용된다.

- (8) a. He was on the plane from New York.
- b. to travel on the bus / tube / coach
- c. I came on my bike.
- d. a woman on horseback

탄도체는 (8a)에서 New York이라는 곳에서 이동해오기를 plane에 접촉한 상태로 이동해온 것을 표현하고 있다. (8b)는 여행하기 위하여 버스나 지하철, 또는 좌석버스 등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8c) 역시 여자가 말 등에 올라타고(접촉하여) 이동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그림6>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

아래는 통신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on’이 사용된 경우이다. 김

일곤의 경우, 방송통신의 수단 및 방법이 아니라 “통신의 수단·방법”(2001)으로 항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통신기기의 휴대성과 쌍방향 통신 및 방송이 발달하여 통신이란 항목만으로는 급증하는 최신 기기가 지표로 이루어진 문장들을 담아내기 힘들다는 판단과 미국 통신법에 따른 방송 및 유무선 통신의 같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여 항목의 명칭을 수정 보완하였다(Communications Act of 1934).

- (9) a. We spoke on the phone.
- b. Th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 c. What's on TV?
- d. The program's on Channel 4.
- e. You can get me on 0181 530 3909.
- f. She's on extension 2401.

(9a)에서 우리는 전화기에다 얼굴을 대거나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접촉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체의 일부가 비록 생략되어 있으나 우리 몸의 일부로 손을 활성역(active zone)으로 하여 직접 접촉을 이루고 있다. (9b)의 문장에서는 정보라는 탄도체는 인터넷이라는 지표를 만나면 가능해지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정보의 가용성이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만나 접촉함으로써 가능해지고 있다. (9c)에서 무엇이 TV 화면 위에 떠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TV와 TV화면에서 보여질 프로그램이 접촉하는 것의 묘사이다. (9d)는 (9c)와 마찬가지로 TV에 관한 것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TV에서도 TV 채널을 지표로 하여 주파수라는 추상적 지표와 구체적인 TV 프로그램이 만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9e)와 (9f)는 둘 다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9e)의 전화번호나 (9f)의 내선번호나 정확히는 전화기기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문장상 “the phone of”라는 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3.5. 물건의 소지 · 착용

아래는 소지 및 착용의 예이다.

(10) Have you got any money on you?

근본적인 탄도체와 지표의 접촉으로 보면 탄도체 money와 지표인 you은 접촉관계에 있는 경우로 타당하다.

2.3.6. 시간

전치사 ‘on’이 나타내는 시간의 개념에 대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공간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on’의 의미가 어떻게 시간적인 측면으로 확대되는가하는 것은 은유적 확대에 기초하여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

- (11) a. He came on Sunday.
b. We meet on Tuesdays.
c. on May the first / the first of May
d. on the evening of May the first
e. on your birthday

‘on’은 요일에 사용되는데, 공간적 접촉의 현상이 시간 표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on’이 쓰인 예문에서 시간적 접촉은 (11a), 그가 도착한 행위가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11b), 우리의 만남이 화요일에 이루어

지는 것은 탄도체가 각각 일요일, 화요일이라는 지표에 접촉한 상황에서 유지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on’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분류되는 것이다.

- (12) a. On arriving home I discovered they had gone.
b. Please report to reception on arrival.
c. There was a letter waiting for him on his return.

(12a)에서 이 때 전치사 ‘on’은 이 두 사건이 맞닿아 있어서 간격이 없음을 나타낸다. 도착한 일과 알아차렸다는 두 개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간격이 없이 접촉되어 있는 것이다. (12b)에서는 도착과 보고라는 두 개의 사건이 연속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잇달아 발생해야하는 것을 나타내며, (12c)에서는 대령의 명령과 모든 군인들이 경례하는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on’의 확장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간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전치사 ‘on’은 은유라는 기제를 통하여 의미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것은 행동의 과정이나 상태, 동작의 방향이나 각종 수단을 표현하는 도구로, 착용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간의 표현에 사용되어도 납득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on’의 추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2.4. 추상 의미

‘on’의 추상적 의미로의 확대는 구체적인 물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물체

간의 접촉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은 추상적 간접접촉(abstract indirect contact)라고 부르기로 한다(김일곤). ‘on’의 의미적 확대현상을 이해하는 단초로 아래의 문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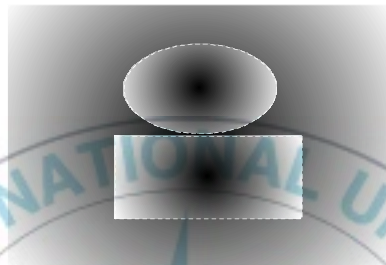
2.4.1. 행위의 근거·이유

다음은 전치사 on이 행위의 근거·이유로서 사용된 예이다.

- (13)a. He lived on a diet of junk food.
- b. On their advice I applied for the job.
- c. to live on a pension / a student grant
- d. to be on a low wage
- e. You can't feed a family on £50 a week.
- f. Drinks are on me.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는 접촉한 상태에서 확장되어 탄도체가 추상적인 정황을 나타내고 그 근거와 이유는 지표로 표현된다. 여기서의 접촉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만이 아니라 구체적 사물의 경우라면 지표가 탄도체를 받치고 있다는 의미로 나타난다. 나아가 추상적 정황을 나타내는 탄도체의 경우, 지표에 의해 상황의 무게가 받쳐지고 있는 상태라 본다. (13a)에서 그의 생존은 정크 푸드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13b)에서 내가 직업에 지원한 것은 전적으로 충고에 행위의 뿌리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13c), (13d)의 구절 표현도 주어가 생략된 형태이나 어렵지 않게 ‘on’ 이하의 상황에 전폭적으로 기대어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임을 볼 수 있다. (13e)는 전치사 ‘on’의 추상적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문으로, ‘on’ 이후의 구, 주당 50불이라는 지표는 탄도체인 가족을 부양

하는 행위가 지탱되지 못하고 발생하지 못함을 지칭한다. (13f)의 예문은 간단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것으로 음료의 발생이라는 탄도체가 나라는 지표의 지탱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료를 내가 낸다는 표현이, 나라는 지표의 지탱과 힘으로 음료가 있다는 것을 ‘on’을 사용하여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림7> 추상적 접촉

2.4.2. 영향력의 행사

아래는 영향력의 행사에를 보여주는 예문으로 위의 경우인 행위의 근거 및 이유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 (14) a. a ban on smoking
 b. He's hard on his kids.
 c. Go easy on the mayo!
 d. She played a tune on her guitar.

앞선 지표가 탄도체의 행위 및 사건을 떠받치는 관계와는 다르게, 이 항목에서는 탄도체가 ‘on’ 이하의 지표에 그 힘을 행사한다. (14a)는 smoking이라는 지표에 ban이라는 탄도체가 제재를 가하는 형상이다.

(14b)는 그의 엄격한 측면이라는 탄도체가 아동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4c)와 (14d)도 같은 구도를 보인다.

2.4.3. 주제 · 저술 등의 밑바탕

아래는 지표가 저술 등의 주제가 되는 경우이다. 살펴보자

- (15) a. a story based on fact
b. a book on South Africa
c. She tested us on irregular verbs.

(15a)에서 이야기라는 탄도체는 사실이라는 지표를 밑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15b)에서 책의 주제는 남아프리카라는 지표로 흔히 “~에 관하여”라고 정의되는 전치사 ‘on’의 의미이다. (15c)의 문장은 불규칙 동사에 관해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불규칙동사와 접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김일곤은 생계 및 생존의 근거를 나타내는 항목인 (30a), (30b), (30c)의 세 문장을 이 항목에 부연하여 저술하였다. 그러나 지표의 든든한 지탱으로 탄도체의 행위 일체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점으로 미루어 본 논문에서는 생존 및 생계의 근거를 나타내는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의 (11a), (11c), (11d), (11e)의 항목을 행위의 근거·이유로 이동하여 같이 살펴보았다.

2.4.4. 종사 · 봉사

아래는 종사나 봉사를 의미하는 전치사 ‘on’의 쓰임이다.

- (14) a. to be on the committee / staff / jury / panel
b. Whose side are you on?

(14a)와 (14b)의 탄도체인 사람, 그 구성원은 위원회나 배심원, 또는 특정 일파라는 지표를 이루는 ‘집단과 동일시되는’ (이기동) 것으로 서로 분리하여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2.4.5. 참가

참가에 해당하는 예문은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의 예문은 김일곤(2001)의 것이다.

- (15) Failure on failure discouraged him.

가장 “하위의 failure는 1차 지표가 되고, 그 위에 탄도체인 failure가 접촉하게 되“어 “참가되는 현상”이 김일곤이 정의한 참가의 형태이다. 동일한 무형의 추상적인 것들이 접촉을 보일 때 이 분류를 사용하였다.

2.4.6. 인적 관계

인적관계에 해당하는 예문은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아래의 예문은 김일곤(2001)의 것이다.

- (16) a. Ronald is on speaking terms with Leonard.

- b. Steve is on visiting terms with Mary.
- c. Israel is not on good terms with Palestine.

김일곤에 따르면, 탄도체인 Ronald는 인간 관계라는 영역(domain) 내에서 지표인 Leonard와 훌륭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외형상으로는 term라는 단어에 국한된 선별로 보인다. term은 앞에 (16a), (16b), (16c)에서 보인 수식어인 speaking, visiting, good을 두고는 사이라고 번역된다.



Ⅲ. 중학교 교과서 분석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전치사의 기본적 의미와 확장·추상 의미에 근거하여 각 교과서에 쓰인 전치사 ‘on’의 예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미들이 적절한 문맥 속에서 사용되었는지 보고 그 빈도를 파악할 것이다.

3.1. 개별 의미의 분포

‘on’의 전체 개수는 363개로 그 중 부사적 쓰임이 43개로 11.85%를 차지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부사적 쓰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전치사로 발견된 것은 320개로 전체 중 88.1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의미 영역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 즉 기본 의미, 확장 의미, 추상 의미에 따라 나뉘며 그에 따른 전치사 ‘on’의 개별 의미 영역별은 다음 <표1>과 같이 12가지 의미로 나누어진다. <표1>은 ‘on’의 의미 분류 중 전치사에 한해 320개를 추려낸 후, 기본적 의미로 183개를 추리고, 확장적 의미로 125개를 발견하였다. 추상적 의미는 22개로 높지 않은 출현을 보였다.

특히 기록해야하는 점이라면, 응답 전형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적 의미의 과반이 넘는 분포를 제외한 2 순위가 흔히 “~에 관해서”로 해석되는 동작의 대상·방향과 수단 등을 나타낼 때 쓰는 경우를 멀리 따돌리고 62개, 19.38%로 기간을 나타내는 쓰임이 차지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표와 함께 한다.

<표1> 3개 출판사 3개 학년 교과서에서 나타난 ON

	개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전치사의 수	320	88.15 %
부사의 수	43	11.85 %
ON의 총 개수	363	100 %

<표2> 개별 의미의 분포

	의미 영역별 분류	총 개수	분포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기본적 의미	공간적 의미	183	57.19 %
확장적 의미	행동의 목적·과정	10	3.13 %
	사람·사물의 상태	9	2.81 %
	동작의 대상·방향	15	4.69 %
	교통·통신의 수단·방법·도구	19	5.93 %
	기간	62	19.38 %
	물건의 소지·착용	0	0.00 %
추상적 의미	행위의 이유·근거	15	4.69 %
	영향력의 행사	5	1.56 %
	종사·봉사	2	0.62 %
	첨가	0	0
	인적 관계	0	0
합계		320	100%

아래는 각 교과서에서 발췌한 문장들의 예이다.

- (17) a. We usually eat sandwiches or potato on the benches.(지학1)
 b. Sit on the floor, and place the bottoms of your feet together.(지학2)
 c. But when I saw the book titles on the list.(지학3)
 d. Glue the newspaper pieces on the balloon.(두산동아1)
 e. Some people left food on the table.(두산동아2)

- f. I will wear your leaves on my head as my crown.(두산동아3)
- g. My aunt lives on a small farm here.(천재교육1)
- h. After about 1,500, people printed advertisements on paper and town criers disappeared.(천재교육2)
- I. He put two balls on the field and one team scored soon afterward.(천재교육3)

공간적 의미는 물질과 물질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17c), (17e), (17f), (17h), (17i)에서 보듯이 수직적인 접촉을 가진 경우가 있다. (17c)의 책 제목은 항목(이라고 적힌 종이) 위에 접촉하고, (17e)는 음식이 테이블 위에 남겨져 있는 상태이고, (17f)는 (월계수의)잎을 머리 위에 쓰겠노라하는 아폴론의 탄식이다. (17h)에서 광고는 종이 위에서 발견되고 (17i)의 두 개의 공은 경기장 위에 놓여져 <그림1>에서 본 것과 같은 전형적인 ‘on’의 수직적 접촉을 보여준다. (17a)의 경우는 전치사 바로 앞에 위치한 샌드위치와 감자도 물론 벤치 위에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라는 탄도체가 벤치라는 지표 위에 자리한 결과이다. we라는 탄도체가 쥐고 있는 샌드위치와 감자는 당연히 벤치 위에 자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7b)의 경우, 전치사 앞에 탄도체가 위치한 것이 아니며 주어조차도 생략되어있으나 명령문의 특성상 응당 생략된 you가 주어로써 floor에 위치하리라는 것은 명징하다. (17e)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가능하다. (17d)의 경우, 지표가 구형인 특성상 the newspaper pieces인 탄도체는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인 접촉을 보여준다.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꼭 물체와 물체간의 수직적인 접촉이기보다는 (17a)나 (17b)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어의 특정 사면이 되는 지표에서의 행위나 물체와 물체가 좌우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17d)에서 보았다시피, 지표가 구형이기에 수직, 좌우를 불문한 부피면적 전체에 탄도체가 접촉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공간적 접촉이 전치사의 총 개수 320개 중 183개, 전치사 ‘on’의 의미 분포 중 57.19 %의 발현을 보였다.

다음은 확장적 의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행동의 목적·과정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 (18) a. Go on a picnic.(지학1)
b. You just have to keep your mouth closed on the way.(지학2)
c. I was about to go on a business trip.(지학3)
d. You can come face to face with the wild animals on a safari.(두산2)
e. Give it a try and you will be on your way to becoming a great writer.(두산3)
f. Jenny couldn't go on a picnic because she was ill.(천재2)
g. What did you do on your trip?(천재3)

(18a)에서 생략된 주어 you의 동작인 go라는 행위가 a picnic이라는 지표와 접촉한다. (18b)에서의 주어 you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the way라는 지표 위를 나아간다. (18a)와 (18f)는 출판사가 다를 뿐 동일한 동사가 쓰여서 주어의 동작을 묘사하고 a picnic이라는 지표가 동일하다. 거기에 (18c)까지는 go라는 동작을 ‘on’의 목적어인 지표를 유지하면서 접촉하는 상태인데, 특히 목적으로 분류된다. (18d)의 경우, a safari라는 무형의 상태인 지표를 유지하다보면 the wild animals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18b), (18e), (18g)와 같이 행동의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의 개수는 320개의 전치사 총 개수에서 10개를 나타냈으며, 분포는 3.13 %를 차지하여 분포 상 높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는 사람·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 (19) a. Do you have some regular jeans on sale? (지학1)
b. The man can't go on vacation because he doesn't have any money. (지학:2)
c. All the books and DVDs are on sale. (지학3)
d. He saw that the left engine was on fire. (두동3)
e. The old model on sale has the functions the girl needs. (천재3)

위의 문장은 'on' 이후의 지표를 접촉한 탄도체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9a)에서 some regular jeans와 (19c)에서의 all the books and DVDs, (19e)의 the old model은 sale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d)도 the left engine이라는 탄도체가 불길이라는 지표에 붙어있는 상황, 우리말로도 불이 붙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그 상황을 의미한다. (19b)가 바로 위에 언급한 행동의 과정과 혼동될 수도 있다. 행동의 과정과의 차이점이라면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으나 본 장이 또 다른 전치사의 인지적 의미를 정확히 분류하여 그것에 맞추어 재단하고 틀림 없이 암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 글의 의의와도 맞지 않으므로 여기서 후략한다. 중요한 것은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지학사에서는 학년별로 다 발견된 'on'의 쓰임이 다른 두 개의 출판사에서는 3학년에 한해 발견된 것이었다. 전치사 'on'에 관한 한, 사람·사물의 상태를 의미하는 'on'의 쓰임에 또한 한정해 지학사가 학년별로 다양하게 문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 의미

분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행동의 목적·과정보다 하나 더 낮아서 개수는 9개, 빈도는 2.81%를 차지하였다.

아래는 전치사 ‘on’의 확장적 의미 중 동작의 대상·방향에 관한 예문을 발췌한 것이다.

- (20) a. I finished my group project on Hillary and Tenzing(지학2)
b. I had gotten bad grades in several subjects that year and had given up on myself.(지학3)
c. We made a wish on a falling star.(두산1)
d. Some people spend too much money on their pets.(두산2)
e. I didn't do well on the test and I feel unhappy.(천재1)
f. Students want to spend less time on the computer.(천재2)
g. You can decide on your job.(천재3)

여기서는 ‘on’ 이후의 지표들은 모두 ‘on’ 앞에 위치한 주어와 그 주어가 만들어내는 동작이 향하는 방향이며 그 동작의 목적어로써 기능한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에 관해서” 라고 쓰이는 것이 (20a)인데, 프로젝트의 주제가 Hillary와 Tenzing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c)의 소원을 비는 행위는 “~에 대고” 라고 번역하는 것으로 a falling star라는 지표를 향해 소원을 비는 것을 표현하며, (20d)와 (20e), (20f)는 ‘on’ 이전의 상황과 동작이 모두 ‘on’ 이후의 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g)의 경우는 decide라는 동작의 목적어로 동작의 대상이 된 것이 지표인 your job이다. (20b)가 (20g)와 같이 give up을 하는 목적어로써 ‘on’ 이후에 지표인 myself를 위치시켰다.

전체 분포는 4.69%로, 전체 개수 320개 중 15개를 차지하였다. 지학사

의 1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의미 분류로 사용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두산동아 출판사에서는 오히려 3학년 교과서에서 발견되지 않아, 난이도의 문제로 인해 실리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천재교육의 출판사에서는 각 학년 모두 발견되었다.

아래는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에 한해 각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두산동아 출판사의 1학년 교과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20) a. Are they talking on the phone?(지학1)
 b. When I had bibimbab on the plane, I picked out and ate the vegetables one by one.(지학2)
 c. Luckily, there was one, and the owner played it on the record player.(지학3)
 d. You talk on the phone with your friends.(두산2)
 e. He was a cab driver and was hard on the horses.(두산3)
 f. Find their meanings on the Internet.(천재1)
 g. You lost your bag on the subway.(천재2)
 h. What would you do if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in a movie theater were talking on the phone?(천재3)

일 순위를 차지한 공간적 의미와 이 순위를 차지한 기간 다음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으로 총 19개, 5.93%의 분포를 보였다. 일견 대단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01년에 발표된 김일곤의 논문 “전치사 ‘on’의 인지적 의미 분석”에서는 다루어지지도 않았던 예문유형인 (20a)과 (20h)의 on the phone, (20f)의 on the internet이 나타난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좁은 국토에 높은 기술력으로 국민적으

로 보급된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인해 예문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
도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위 예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교통수단으로 쓰인 경
우이다. (20b), (20e), (20g)가 그 경우로 교통수단이라는 ‘on’ 이후의 지표
에 올라타 접촉한 채로 탄도체가 이동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방송통신의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20a)와 (20g)의 on
the phone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휴대폰과의 접촉점은 김일곤에 의하면
손이 그 접촉 지점이며 손이라는 신체의 일부가 확장되어 phone이라는
지표와 손을 소유한 신체의 주인인 주어가 접촉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본인이 보는 바는 휴대폰에 얼굴을 직접 갖다대고 말하고 듣는 이미
지만으로도 충분히 ‘on’의 인지적 개념은 전달된다는 생각이다. 전통적인
수단이나 도구의 사용이 바로 손을 통한 것이었기에 김일곤의 해석에 동
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지만, 전치사를 인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전통적이고 관례적인 분석적으로 접근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직관과
영상으로 전치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
그런 면에서라면 더 쉬운 이미지를 두고 돌아가는 것은 이해를 더 어렵
게 만들지 않나 생각한다.

3.2. 학년별·출판사별 의미의 분포

아래는 총 320개 중 기간으로 쓰인 62개중에서 각 출판사별 각 학년별
로 발췌한 것이다. 분포는 19.38%로 공간적 의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
다.

(21) a. I don't have classes on Saturdays and Sundays. (지학1)

- b. I have to go to the library to study on weekends. (지학2)
- c. What will Yujin's cousin get on her birthday?(지학3)
- d. What do you like to do on the weekend?(두산1)
- e. On Thursday, I went to see the Zulu dance.(두산2)
- f.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s?(두산3)
- g. Why don't you come on Monday?(천재1)
- h. First, go to a quiet beach on a sunny day and find a comfortable place.(천재2)
- I. On the first day of class, we talked about what we wanted to be in the future.(천재3)

학년		중1 (갯수/분포율)	중2	중3
기본적 의미	공간적 의미	51(56.67%)	49(57.65)	83(57.24)
확장적 의미	행동의 목적·과정	1(1.11)	2(2.35)	7(4.83)
	사람·사물의 상태	1(1.11)	2(2.35)	6(4.14)
	동작의 대상·방향	3(3.33)	5(5.88)	7(4.82)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도구	8(8.88)	6(7.06)	5(3.45)
	기간	23(15.56)	18(21.18)	21(14.48)
	물건의 소지·착용	0(0.00)	0(0.00)	0(0.00)
추상적 의미	행위의 이유·근거	1(1.11)	3(3.53)	11(7.59)
	영향력의 행사	0(0.00)	0(0.00)	5(3.45)
	종사	2(2.22)	0(0.00)	0(0.00)
	첨가	0(0.00)	0(0.00)	0(0.00)
	인적관계	0(0.00)	0(0.00)	0(0.00)
총합		90(100%)	85(100%)	145 (100%)

<표 3>학년별 의미 분포도

표의 그 다음 칸이며, 확장적 의미 분류의 한 가지로 물건의 소지·착용의 경우는 의아하게도 세 개중 어떤 출판사의 어떤 교과서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것은 그런 경우, put이나 take와 함께 부사로 사용되는 것이 주 이유로 부사에서 쓰인 결과로는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었다.

아래는 행위의 이유·근거로 쓰인 경우이다.

- (22) a. They live on fruits and grass.(지학2)
- b. It is always based on the real life experiences of real people
 in real places.(지학3)
- c. I am working on an egg drop experiment now.(두산2)
- d. Are you working on anything now?(두산3)
- e. Work on her math homework then(천재1)

흔히 “~에 의존하여”라고 쓰이는 경우로 (22a)가 있다. 그들은 fruits와 grass에 의존하는 행위를 통하여 live라는 행위를 지속하였다. (22b)와 (22c), (22d), (22e)는 주로 work이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는 점 말고도 “~에 기반하여”라는 의미로 주로 발견되는 것이다. 개수는 확장적 의미의 동작의 대상·방향과 일치하여 15개이다. 하지만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대부분의 발현이 중 3의 교과서에 몰려있는 점이다. <표3>의 학년별 의미 분포도를 참조하면, 중 3의 교과서에만 11개를 발견하였으며 <표4>의 출판사별 빈도 분석을 보면, 지학사에 11개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두산의 교과서에서는 (22c), (22d)의 예문이 유일한 것이며 1학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천재 교과서에는 단 2개의 예문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1학년의 것이었다.

아래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23) a. Mr. Owl is famous for giving advice on all type of problems.

(두산3)

b. This experiment shows the effects of a special force on the coin.(천재3)

지학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산동아, 천재교육 모두 3학년의 교과서에서 모두 5개가 출현하였다. ‘on’이전에 자리한 탄도체의 힘이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두산동아	지학사	천재교육
기본적 의미	공간적 의미	44(52.38%)	46(41.81%)	93(73.81%)
확장적 의미	행동의 목적·과정	3(3.57%)	5(4.55%)	2(1.59%)
	사람·사물의 상태	3(3.57%)	5(4.55%)	1(0.79%)
	동작의 대상·방향	5(5.95%)	4(3.64%)	6(4.76%)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	3(3.57%)	9(8.19%)	7(5.56%)
	물건의 소지·착용	0(0.00%)	0(0.00%)	0(0.00%)
	기간	21(25%)	28(25.45%)	13(10.31%)
추상적 의미	행위의 이유·근거	2(2.39%)	11(10%)	2(1.59%)
	영향력의 행사	3(3.57%)	0(0.00%)	2(1.59%)
	종사·봉사	0(0.00%)	2(1.81%)	0(0.00%)
	첨가	0(0.00%)	0(0.00%)	0(0.00%)
	인적 관계	0(0.00%)	0(0.00%)	0(0.00%)
전치사의 합계		84(100%)	110(100%)	126(100%)

<표 4> 출판사별 빈도 분석

다음은 종사 및 봉사에 관한 문장으로,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에 실려있지 않은 문장의 종류인데, 지학사 1학년에 교과서에 2개의 문장이 나타나있어 여기 모두 옮겨본다. 그 외 타 교과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 (24) a. I was a good hitter on my school baseball team.
b. I invited my friends on the baseball team for lunch.

같은 단원에서 발췌한 것으로 탄도체가 'on' 이후의 지표의 일원으로 종사하거나 봉사하여 임무를 하는 직책임을 나타낸다.

첨가와 인적관계는 문장의 특성 상 쉬이 발견되기 어려웠다.²⁾

다시 다른 예문을 발췌해 부연하도록 한다.

- (25) a. There's another store on Gana Street. (지학:1)
b. You can hear me on the radio and TV. (지학: 1)
c. They are (중략) even on soccer players' uniforms. (천재:2)
d. Because she always insists on her own opinion.(지학: 3)
e. We posted them on the board. (천재:2)
f. He was a cab driver and was hard on the horses. (두산동아:3)
g. It is fun to go out on Sundays. (두산동아:2)

2)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김일곤의 “영어 전치사 ‘on’의 인지적 의미 분석”에서 발췌하였다.

- i) Failure on failure discouraged him.
ii) a. Ronald is on speaking terms with Leonard.
b. Steve is on visiting terms with Mary.
c. Israel is not on good terms with Palestine.

h. I was a good hitter on my school baseball team.(지학1: 71)

i. He tries regular jeans on.(지학1: 61)

정리하자면, (25a)와 같은 공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압도적으로 높고, (25b)의 기간과 교통·통신의 수단·방법·도구로 사용된 것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첨가에서 하나의 예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외로 물건의 소지 착용으로 (25c)단 하나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상위 3가지의 의미항목을 제외하고는 발견 빈도가 고르게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추상의미 중에서는 (25d)행위의 이유·근거가 다른 추상의미와 비교할 때 비교적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확장적 의미의 상위 2개를 제외한 낮은 분포의 평균과 거의 일치하는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치사의 의미별 빈도를 살펴보면 (25e)공간적 원형의미가 57.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확장적 의미의 (25g)기간이 (19.38%), 그리고 확장적 의미의 (25f)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5.93%) 순이었는데 이 세 영역이 전체의 82.50.%로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장적 의미로서는 기간과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이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었다.

세 종류의 출판사 비교에서 두산동아는 84개, 지학사는 110개, 천재교육은 126개로 나타났다. 두산동아는 원형의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학사와 천재교육도 공간적 원형의미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두산동아와 지학사, 천재교육 모든 교과서에서 기간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으며, 분포는 위의 최상위와 차상위를 제외하면 사용횟수가 많은 편이 아니고, (25h)중사를 의미하는 표현은 지학사에서만 2회 발견되었을 뿐이며, 착용을 뜻하는 의미로는 ‘on’의 (15i)부사적 사용이 잦았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전치사 ‘on’의 의미별 빈도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간적 원형 의미, 기간을 뜻하는 경우,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의미 분포가 치중되어 있었다. 첨가의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출판사별 비교에서도 분포도가 높은 쪽도 분포가 낮은 쪽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IV. 결론

본 논문은 Bolinger에 따라 ‘on’의 접촉관계를 trajector와 landmark로 구분하고 김일곤(2001)에 따라 전치사 ‘on’의 의미를 원형의미에서 확장의미, 추상의미까지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교통·통신의 방법·수단”이라는 항목을 “교통·방송 통신의 수단·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보았다.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 3종 9권에서 수집한 363개의 표본자료를 의미영역별로 분석하고 그 빈도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첫째, 표본 교과서에서 ‘on’이 전치사로 사용된 용례는 320개이고, 부사로 사용된 용례는 43개로 나타났다.

둘째, 전치사의 의미영역별 전체 빈도는 공간적 원형의미가 전체의 57.19 %, 그 다음 확장의미의 영역은 35.94% 그리고 추상적 의미의 영역이 6.87%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셋째, 공간적 원형의미를 의미 범주 별로 살펴보니 수직적 상하 접촉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넷째, 확장 의미에서 기간의 의미로 사용된 ‘on’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교통·방송통신의 수단·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로 인터넷과 휴대폰의 국민적 보급으로 예문의 발현 빈도가 상승하였다고 유추 가능했다. 반면, 종사 및 봉사의 의미 분류로 발견된 것은 전체 중에 단 한 개의 출판사인 천재교육의 1학년 교과서에서 단 2개였다.

다섯째, 추상의미의 첨가, 인적 관계를 의미하는 전치사 ‘on’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세 출판사별 비교에서는 두산 동아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공간이 단연코 높았으며 그 다음이 62회로, 확장적 의미의 기간이었다. 지학사의 교과서에도 가장 높았던 전치사 ‘on’의 출현은 46회의 공간적 원형의미였고 그 다음은 28회의 기간이 차지하였다. 천재교육에서도 공간적 원형의미의

빈도가 높았는데, 무려 93회로 다른 두 출판사, 지학사 46회, 두산동아 44회의 빈도에 비하여 월등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on’의 의미를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원형적 의미에서 확장적 의미 추상적 의미 순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수가 진행된다면 학습자의 전치사 ‘on’의 개별 의미와 더불어 전치사들 간의 차이점을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치사 기본 의미를 토대로 의미적 확장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학습자들의 전치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분석 교과서 목록>

- 이병민, 박기화, 임인재, 문영인, 최태원, 이주연, Chrisian H. Kim,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두산동아.
- 이병민, 박기화, 임인재, 문영인, 최태원, 이주연, Chrisian H. Kim,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두산동아.
- 이병민, 박기화, 임인재, 문영인, 최태원, 이주연, Chrisian H. Kim,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두산동아.
-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호, 이선정, 「Middle School English」 1. 서
울: 지학사.
-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호, 이선정, 「Middle School English」 2. 서
울: 지학사.
-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호, 이선정, 「Middle School English」 3. 서
울: 지학사.
-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Georgeanna Hall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
-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Georgeanna Hall
「Middle School English」 2. 서울: 천재교육.
- 이재영, 서성기, 문안나, 배태일, 김신혜, 최아정, Georgeanna Hall
「Middle School English」 3. 서울: 천재교육.

참고문헌

- 김일곤. 2001. 영어 전치사 ON의 인지적 의미 분석. 「담화와 인지」 8, 43-67.
- 이기동. 1981. 'on'의 의미. 「어학연구」 17, 199-214
- _____. 1997. 인지문법에서 본 구절동사. 「언어」 22, 667-701.
- _____. 2001. 「영어전치사 연구」 서울: 교문사.
- 이창희. 2001. 전치사 'on'의 의미확대현상 분석. 「언어과학연구」 20, 275-296.
- Lake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83.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 _____.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An Overview of Cognitive Grammar. In Rudzka-Ostyn, B.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3-48. Amsterdam: John Benjamins.
- _____.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New York: Mouton de Gruyter.
- _____. 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Walter de Gruyter Inc.